

기고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과 국민들의 협조

지금 세계는 중국 우한(武漢)이 발원지라서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비상 상태이다. 보건 분야의 가장 과학적이고 권위적인 국제적인 조직인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29일(현지 시간) 두 번째로 소집된 긴급위원회에서 여행 이동의 자유의 전면적인 제한은 권유하지 않았지만,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2005)에 따라 국제공중보건 위험 사건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을 선포했다.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선포는 법적 강제력은 없는 권고 사항이나 세계 각국은 협조하고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 각 국가마다 협조와 이행의 정도는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각 국가는 중국 우한이나 중국 전 지역과의 이동이나 교류를 전면 또는 일부 제한 차단하고 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은 일찌감치 육해공 모든 통로를 봉쇄하고 차단하고 있다. 의료 체계가 열악한 북한은 다. 의료 체계가 열악한 북한은 발원지 중국은 후베이성(湖北省)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2월 4일 오전 9시 현재,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중국에서 발생 두 달이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확진자)는 27개 국가에서 총 20,603명이고 사망자는 하루새 65명이 늘어나서 현재 426명이다. 국가적인 재앙(災殃)이다. 과학이 발달된 현대사회에서 전쟁이 아니고 전염병으로 단기간에 수백 명이 사망한다는 일은 국가 사회적으로 큰 사변이다.

국가 별 확진자는 중국 20,438명(사망 425), (아시아) 홍콩 15명, 대만 10명, 마카오 8명, 태국 19명, 싱가포르 18명, 일본 16명, 베트남 8명, 네팔 1명, 말레이시아 8명, 캄보디아 1명, 스리랑카 1명, 아랍에미리트 5명, 인도 3명, 필리핀 2명(사망 1), (아메리카)

미국 11명, 캐나다 4명, (유럽) 프랑스 6명, 독일 8명, 핀란드 1명, 이탈리아 2명, 영국 2명, 러시아 2명, 스웨덴 1명, 스페인 1명, (오세아니아) 호주 12명이다.

우리나라도 우한 교민 입국 문 제부터 혼란이 있었다. 천안에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우한 교민 격리 수용 시설로 결정되자 거세게 반발했던 이들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로 해서 큰 문제는 해결되었다. 우리나라 누적 유(有)증상자가 607명, 확진자가 16명이다. 16번째 확진자는 중국이 아닌 태국 여행을 하고 돌아온 42세 여성으로 광주에 있는 전남대 병원에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호남에서 첫 확진자이다.

무(無)증상자에게는 감염이 안 된다고 발표했다가 무(無)증상자에게서도 전염이 된다고 정부 방역 당국이 발표했다. 지금 보건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리 상황을 국민들에게 보

고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노력이다.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필히 쓰고 귀가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에서 2002년 11월 발병하여 2003년 7월 종식된 사스(SARS,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는 감염자 8096명, 사망자 37개국 774명(중국 349명, 한국 없음)이었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12년 4월 첫 발견하여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유행했던 메르스(NERS, 중동 호흡기 증후군)는 25개국 감염자 2430명, 사망자 838명이었다. 한국은 감염자 186명, 사망자 38명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감염자가 두 번째로 많았고 중국은 사망자가 없었다. 이때 야당(현재의 더불어민주당)과 언론, 국민들은 초기 대응이 안일하고 허술했다. 정부 대응이 우왕좌왕했다 등 정부를 비난했다. 이번에도 정부가 똑 같은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사망자는 없지만 정치·경제·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영향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혜와 힘을 모아서 잘 헤쳐나갈 것으로 믿는다. 많은 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총력 노력하고 있으니, 마지 않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社 說

광주서도 결국 확진환자 나왔다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결국 광주에서도 확진환자가 발생해 지역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정부와 보건당국은 대응방안에 오락가락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들이 과연 치밀하게 조율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동안의 사례에서 보듯 부처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을 조율하고 이를 신뢰성 있는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국가 위기관리시스템에 일부 허점이 노출됐다. 국가 위기 때 컨트롤타워를 둘러싼 논란이 생긴 것도 이런 이유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된 뒤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무총리실에도 상황관리실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부처간 대책 조율과 대국민 메시지를 관리하는데 혼선이 생기는 모습이다. 지금까지도 방역에 관한 과학적·기술적 판단은 모두 질병관리본부에 맡기

고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을 지는 청와대는 정제된 메시지를 내보내는 식으로 대응 체계를 잡아야 할 것이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질병 자체 뿐 아니라 불안·공포도 극복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은 전문가 집단이 모여있는 질병관리의 대책들이 과연 치밀하게 조율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재난에 정부가 개입하면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수많은 목격한 경험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근 중국인 입국 금지, 한국 체류 중국인 관광객 분국 송환과 같은 초강경 대응을 주장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를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당파적 이해득실을 따지면 일을 그르치기에 십상이다.

부실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능장대응보다는 선제대응이 낫다지만, 최선은 적기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다. 길게 봐서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자년' 인재(人災)로 인한 안전사고 없는 해로

2019년 한 해는 화재와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사고가 그렇듯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여 미리 살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

'기해년' 한 해를 보내고 육십간지 중 37번째 해인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작이라는 자세로 과거의 각종 안전사고를 거울 삼아 시민 모두가 화재예방 실천과 안전문화를 정착해 더 이상 소중한 가족, 직장동료들의 목숨을 잃거나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나 하나쯤이야', '이러면 되겠지', '괜찮겠지'라는 사고방식에서 건물붕괴, 각종 화재 등이 발생하여 가족과 심지어 소방공무원까지 숨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다.

또한 집원동 건물철거 중 붕괴 사고도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로, 사건 이후 안전을 강조

다'는 속담처럼,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불조심 표어처럼 다른 사람이 바보처럼 '기우(杞憂)'라고 할지언정 안전에 있어서는 돌아보고 확인하는 정성이 있어야겠다.

안전은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준비했을 때만이 '안전'이라는 두 글자가 가정과 직장을 행복하게 지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자년'에는 인재(人災)라는 소리가 나오는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모일 때 가능한 일 일 것이다.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정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영간)

**호남신문** 회장·발행인 김평호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7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체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사제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문화응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